

유통업계, 새로운 수장들

KGC인삼공사, 안빈 신임대표

“‘글로벌 원 마켓’ 전환 추진”

해외, 압도적 성장으로 이익극대화
국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신성장 사업확대 통한 재도약 도모



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6% 줄어 800억원을 기록했다.

KGC인삼공사의 홍삼 관련 제품 수출액은 지난 2019년 1333억원, 2021년에는 1782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면세점 판매 부진 등 수익원이 줄며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KGC인삼공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안빈 KGC인삼공사 글로벌본부장(사진)을 대표이사(사장)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안빈 신임 대표는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졸업 후 2000년에 KGC인삼공사에 입사해 업무 경력을 쌓았다. 2010년 KGC인삼공사 인천공항지사장, 이듬해 마케팅전략부장을 지냈다.

이후 2016년에는 KGC인삼공사 브랜드실장과 화장품사업실장을 겸직했다. 2020년 코스모코스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22년 KGC인삼공사 글로벌본부(CIC)장을 역임했다.

안빈 신임 대표는 “글로벌 톱티어 종합 건강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내외 시장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글로벌 원 마켓’ 관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해외는 압도적인 성장으로 이익극대화를 추진하고, 국내는 가맹사업을 필두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으로 재도약을 이끌어 전사 수익성 혁신과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7년까지 ‘연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KGC인삼공사는 수익성 개선이 급선무다. KGC인삼공사 매출은 2018년도 1조3255억원에서 지난해 1조2234억원으로 5년간 7.7% 역성장했

KGC인삼공사는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신성장 사업 확대를 통한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은 중국과 미국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국가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1655억원과 4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비 각각 47%, 2.5% 증가한 수치다.

KGC인삼공사는 지난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적중해 고성장을 통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정관장 전문 매장과 약국, 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에서 총 1만여 개의 채널에 입점해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상해 R&D센터를 통해 현지 수요에 대응할 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작년에 개소한 미국 R&D센터에서도 현지 제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프라퍼티, 서철수 신임대표

역량확충·내실 다지기 ‘박차’

국내 대체투자·리츠 분야 최고 전문가
스타필드 등 스폰서 리츠 선별 계획
우량자산 공급 파이프라인으로 경쟁력 ↑



표 선임을 시작으로 운영 체계 정립, 전문인력 강화 등 역량 확충과 함께 내실 다지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후 모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핵심 자산인 스타필드 등을 기초로 하는 스폰서 리츠를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신세계프라퍼티의 우량자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동시에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참여를 통해 시장에 안정적인 리츠 상품을 공급,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가 서철수 전 NH농협리츠운용 대표(사진)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리츠 사업 진출 본격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신세계프라퍼티가 100% 출자한 부동산 자산 관리(AMC)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설립 초기 단계인 만큼 회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리츠 운영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부동산과 금융 부문에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서철수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신규 선임된 서철수 대표는 지난 2018년 NH농협리츠운용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NH프라임리츠와 NH올원리츠를 상장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국내 대체투자 및 리츠 분야에 있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또한 KDB 산업은행 자금부, PF실 등에서 근무 후 한국투자신탁운용 SOC 본부장, 실물 자산운용본부장을 거쳐 대체투자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 투자관리 부문에 매진해 왔다.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서철수 대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리츠 및 투자관리 전문가로 업계에서 정평 난 서 대표 영입을 통해 스폰서 리츠 시장에 좋은 범형(範型)을 선보임과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시작으로 리테일 시설은 물론 주거 및 오피스와 결합, 중소형빌딩, 시니어 하우스, 동서울 터미널 재건축, 화성국제테마파크 도시 건립 등 다양한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리츠AMC’ 플랫폼인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유동화, 이를 신사업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클리 국내 출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등 치료제
솔리리스, 연간 치료비용 4억 달해
오리지널비 약가 절반수준으로 인하



‘에피스클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에게 처방해 바이오시밀러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성분명: 에쿨리주맙)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해 아스트라제네카가 판매 중인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다.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용독 증후군 등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에 쓰인다.

무엇보다 솔리리스는 성인 기준 연간

스는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기준 병당 513만2364원이던 약가를 절반 수준인 251만4858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이는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솔리리스 약가 360만원에 비해서도 약 30% 저렴한 금액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월 국내에서 에피스클리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유통 및 판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직접 담당한다. 또 에피스클리를 처방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3년에는 에피스클리를 유럽 시장에 출시하기도 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케어, 신임 대표이사에 김진태 씨 선임

수익성 강화·신사업 발굴 집중



장을 거쳐 지난 2018년에는 지오영 그룹 총괄사장을, 2022년부터 최근까지는 한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GC(녹십자홀딩스)의 헬스케어 자회사 GC케어가 새로운 인사를 영입해 수익성 강화와 신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GC케어는 지난 3월 29일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진태 대표(사진)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진태 신임 대표이사는 IT, 금융,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전문 경영인이다.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맥킨지와 현대카드 등에서 전략·운영·마케팅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특히 ADT캡스와 티몬 부사

김 대표는 앞으로 GC케어에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며 회사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GC케어는 기업용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전화 상담 기반의 기업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어떠케어’ 등을 고도화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에스아이빌리지, ‘빌리지페스타’ 진행

최대 30% 적립·80% 할인

신세계인테리어서늘이 운영하는 자체 디지털 플랫폼 ‘에스아이빌리지’가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간 상반기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빌리지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e포인트로 적립해주며 명품백부터

니치 향수, 럭셔리 골프웨어 등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번 빌리지페스타에는 ▲마르니, 메종마르시엘라, 에르노, 아르마니, 알렉산더왕 등 럭셔리 패션 브랜드 ▲제이린 드버그, 필립플레인골프, 뷰오리 등의 스포츠웨어 ▲스튜디오 톰보이, 보브, 지컷 등 여성복 ▲바이레도, 아워글래스, 로라메르시에 등 니치 향수 및 화장

품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국내외 인기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주요 행사로는 최종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e포인트로 돌려주는페이백 이벤트가 있다. 신세계인테리어서늘이 자사 브랜드의 경우 ▲50만원 이상 구매 시 30% ▲20만~50만원 구매 시 15% ▲20만원 미만 구매 시 10%를 적립해 준다. 입점 브랜드는 구매 금액에 관계없이 7~15%가 차등 적립된다. 기존 정례 행사 대비 적립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

6년 연속 모델 재계약 체결

아모레퍼시픽의 컨템포러리 서울 뷰티 브랜드 ‘헤라’가 글로벌 아이콘 제니와 브랜드 활동을 이어간다.

헤라는 제니와 6년 연속 모델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헤라는 지난 2019년부터 제니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해 지금까지 헤라만의 서울 뷰티와 문화를 제니와 함께 전파하고 있다.

제니는 음악, 패션,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니 특유의 개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활동하고 있는 선구적인 아티스트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헤라는 제니가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전파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 공개한 서울리스타 브랜드 캠페인 영상에서 제니는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넓혀가는 진취적인 태도로 오늘날의 서울리스타를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청하 기자